

김성한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Writer Consciousness in Kim Sung-han's Short Stories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김성한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비속한 인물에는 냉소주의가 나타난다. 둘째, 피해자형 인물들에서는 작가의 의식을 반영한 허무주의가 그려진다. 셋째, 반항자형 인물에는 행동주의가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성한은 부조리한 현실을 작가의식의 프리즘을 통해 다양하게 그려냈음을 알 수 있다.

I. 서론

50년대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연구자들에게 있어 50년대의 사회와 문학의 분위기를 먼저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50년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가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이해의 지평을 가진 채 50년대를 연구할 경우, 매우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50년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60년대나 70년대와 상당히 다른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학 외적으로는 50년대가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전쟁과 분단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문학 내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해 주체와 타자 즉 소설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전후작가들의 문학은 전쟁의 상처에 대한 기록이라 할 것이다¹⁾.

본 연구에서는 김성한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그의 '작가적 성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성한 소설의 인물유형을 설정하고 김성한의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물 유형화 작업은 자칫하면 도식적 틀 속에 작가와 작품을 가둬놓고 편의주의적 해석을 내리는 우를 범할 위험도 따르지만, 김성한의 작가의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비속한 인물에 드러난 냉소주의

김성한의 초기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의 소

재는 자기 은폐를 통한 부정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야유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의 데뷔작인 〈무명로〉에서 예고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이재신은 만주지방에서 일본군의 밀정 노릇을 했던 과거를 숨기고 가식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속물이다. 그는 남의 이목 앞에서는 철저히 위장된 걸치레로 권위를 부리며 점잖음을 가장하지만, 뒷전에서는 부인의 밀주 제조를 돕고 보따리 장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소년에게 카라멜 독점 판매를 주선해주겠다고 허풍을 떨어서 교제비조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온갖 위선과 사기 행각을 저지른다.

〈김가성론〉에서 김가성 교수는 27세의 대학교수요, 그것도 그의 전공인 화학분야의 대가요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작중 화자인 '나'는 작가에 의해 김가성 교수가 지은 '화학의 철저적 연구'라는 책이 일본 책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대화를 나누게 하고, 동창생들의 입을 통하여 김가성 교수가 돈 많은 친구만 결혼식에 초청하고 해방의 틈을 이용하여 새치기를 해서 스스로 권위자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하게끔 하는 등 여러 에피소드를 작품 속에 삽입시킴으로써 김가성 교수의 비난을 하게끔 한다.

〈자유인〉의 이광래는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있으면서 교원 사이의 이간질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충직한 교원에게 누명을 씌워 학교를 내쫓는 데 그의 간교함을 다 동원한다. 이광래는 훌륭한 교육자로 자처하면서 부정입학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는 인물인 것이다. 겉으로는 지식과 덕망을 겸한 교육자로 비치게끔 행세하고 또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교원들도 그렇게 믿도록 주도면밀하게 행동한다. 한마디로 사기꾼에 해당하는 이광래를 통해 작가 김성한은 지식인의 비속성을 고발한다.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위선과 허세와 비리가 저지르는 추악한 작태의 노출이다. 1950년대의 세태를 반영한 그의 초기소설에는 비속한 인물들에 대한 혐오가 짙게 나타난다.

2. 피해자형 인물에 나타난 허무주의

김성환에게 동인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바비도〉의 주인공인 바비도가 피해자형인가, 아니면 반항자형인가 하는 문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평론가 백철은 젊은 세대의 작품상 특질을 지적하는 데서 이 작품이 “반항의 의식을 그대로 부패, 부정, 허위의 현실에 대한 정면공격으로 대치한 예”^[2]라고 했다.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바비도는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상황에서 반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다 흥미가 없어졌으며, 그래서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3]라고 한데서 반항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간세상,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흥미가 없어졌습니다.”^[4]라고 한데서는 허무주의가 느껴진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양상은 〈극한〉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하여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일본 여인의 비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패전과 더불어 목사인 남편은 그가 원장으로 있는 고아원의 원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녀는 피난열차를 타고 귀국하는 도중, 소련병사에게 강간을 당한다.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우동장사를 한다. 이 작품에서 다쓰오는 피해자형 인물인 동시에 작가의 허무주의를 대변한다.

김성환의 소설에서 피해자형 인물에 해당하는 작품은 비속한 인물에 비해 양적으로 많지 않다. 대개가 극한 상황을 설정하고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비도〉와 〈극한〉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인물이 실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몰의식의 세계에 안주하는 데서 허무주의의 한계가 드러난다.

3. 반항자형 인물에 나타난 행동주의

반항자형 인물형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현실 부정이다. 이러한 반항자적 면모는 〈귀환〉에 잘 드러난다. 작품에서 김경석의 죽음은 부조리한 상황에 정면으로 대결한 자의 능률함 그것이다. 그는 대학 교수이며 군대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군대에 간다. 경석이 입대한 이유는 인간을 느끼기 위해서다.

〈방황〉에 나오는 흥만식의 경우는 체념의 순간에 타인의 부축에 의해 그것을 벗어나는 행복한 것이다. 그는 동물이 되어 본능만을 채우겠다고 작정하고 ‘석탄 반출 작업’과 ‘사고 구조 작업’에 종사한다. 〈오 분간〉은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 사이에 나눈 오 분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비난하고 ‘제 삼 존재의 출현’을 요망하는 내

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신화적 요소의 도입이란 의미를 넘어서 김성환이 처음부터 추구해 온 혼란한 시대, 기존의 가치가 사라진 현실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간상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김성환은 전후세대 작가들이 기성적인 것에 반항했듯이 반항자형 인물을 통해 현실에 팽배한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항의식이 소설의 요건 중에 하나인 서사적 자아의 확립을 통해서 표출되지 못한 것은 그의 한계이자 50년대 소설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김성환의 단편소설을 통해 그의 작가의식을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그의 작가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당대의 세태를 반영한 비속한 인물에 나타나는 냉소주의다. 둘째, 전후의 암담한 현실을 그려낸 피해자형 인물에 나타난 허무주의다. 셋째, 반항적 인물에 나타난 행동주의다. 이는 김성환이 사회악에 맞서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관념에 머물면서 서사적 자아의 자기성찰이 부재한 것은 그의 소설의 한계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2] 백철, 한국문학의 이론, 정음사, 1964.
- [3] 김성환, 바비도, 무명로/장씨일가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32, 두산동아, 1995.
- [4] 김성환, 바비도, 무명로/장씨일가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32, 두산동아, 1995.